

● 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지키자

‘현대인의 새로운 종교로 자리잡은 것이 관광산업이다’ 라고 한 사진작가 마틴파의 말처럼 정신없이 변해가는 생활 속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상 탈출이다. 삶의 가치관이 변한 현대인에게 새로운 곳, 문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종교나 다름없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잦은 여행경험으로 성숙한 매너를 보여주는 멋진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호텔에서

동남아, 일본, 미주, 유럽 각국의 호텔이 우리의 호텔과 같을 수는 없다. 호텔수준과 시설물을 우리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불편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내 여행조건에 맞는 호텔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집 수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제기하는 불만에 ‘한국인만 불평 불만이 많다’ 고 하는 현지 호텔인의 말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

● 식당에서

외국의 경우 보통 안내받은 좌석에 앉아야 하는데 꼭 다른 좌석에 앉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단체좌석에 대한 불만, 구석진 곳에 배정한다는 피해의식 등으로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괴롭다. 그러면서도 식당에서 파는 주류가 있는데 가져 온 술을 적당히 눈치보며 마시고, 아침 뷔페에서 물이나 과일 빵 과자류 등을 챙겨 가고, 번잡한 행동 등을 한다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힘들다.

●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이 안 되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고 작품에 손을 대는 행동, 각국인이 모두 모인 관광지에서 뛰고 소리지르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 연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행동, 소리쳐 일행을 부르는 일... 외국인의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차내에서 냄새가 심한 오징어, 쥐포, 아이스크림 등을 먹고 휴지를 여기저기 버리는 행동, 앞좌석만을 고집하여 좌석 잡기 경쟁으로 아침 일찍 나오고 전날 미리 좌석을 확보해 놓는 행동, 이 또한 모두가 즐거워야 할 여행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 사고 발생시에는 이렇게 하세요

✳ 여권분실

-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 ◇ 사진
- ◇ 여권 분실증명서
-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 ◇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 ◇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항공권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 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 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 ◇ 항공권 번호
- ◇ 발권 년월일
- ◇ 구간

*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 1장당 US\$50 이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공사(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 여행자수표분실



여행자수표앞면



여행자수표뒷면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 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 수하물분실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나서 24 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공항에서 'BAGGAGE CLAIM' 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 을 항공사에서 제공키로 되어 있다.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한다 - 파업의 경우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 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의 ENDORSE 를 받는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T/C 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TC 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 피해자의 성명

◇ 병원명

◇ 상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 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 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 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 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 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POLICE REPORT

-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 ◇ 여권 COPY
-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번호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 ◇ 현금
- ◇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 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 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의사 소견서
- ◇ 치료비 영수증
- ◇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